

## 축 사

가야산 연봉들이 꽃으로 장엄하고 상왕봉(象王峰)은 초록으로 봄단장을 마쳤습니다. 상왕이란 곧 부처님을 일컬음이니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깨달음의 산, 가야산에 팔만사천 법문을 깊이 간직한 이곳이 바로 부처님 나라, 깨달음의 장입니다. 이곳에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염원하는 눈 푸른 납자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니, 이 나라 최고의 선불장인 해인총림입니다.

백장 회해 선사가 이르기를 ‘여러 수행자들이 한 도량에 모여서 서로 화합하며 수행하는 것이, 마치 풀이 무성하고 우거진 숲이 곧게 자라는 것과 같아 총림(叢林)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녹음방창(綠陰芳暢)한 가야산에 본분납자들이 가득하여 울울창창한 총림을 이루었으니 바야흐로 불, 법, 승 삼보가 구족한 청정도량입니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간직한 세계 제일의 법보종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다라장(修多羅藏)을 간직하고 있다하더라도, 수행가풍이 끊어지고 청정한 계율과 청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곳 해인총림은 면면부절한 수행가풍과 엄격한 계행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곳에서 배출된 종정스님들 만큼이나 많은 종장들이 한국불교의 수행과 계맥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이곳 법보종찰에 새로운 방장스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참으로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일생의 덕화에 공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원각 방장스님께서서는 용성, 인곡, 혜암 스님으로 이어져온 법맥을 이어, 50여년 동안 가야산과 해인사를 떠나지 않고 정진하셨습니다. 평생을 수선납자로 살아오신 해인총림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근현대 최고의 법문으로 꼽히는 성철스님의 ‘백일법문’도 현장에서 접하셨고, 석암스님, 지월스님, 혜암스님, 일타스님, 지관스님, 그리고 법전스님 등, 기라성 같은 선지식의 수승한 가르침을 이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납자의 길에서 한 번도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고, 또한 스승을 시봉하는 일도 가벼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사이신 혜암 대종사의 뒤를 이어 해인총림 유나의 직책을 십 수 년간 맡아 오시며, 해인총림의 화합운영에 기여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전국선원수좌회의 공동대표로서 선풍 진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정신의 총화라고 하는 해인총림에 눈푸른 납자들을 제접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눈 밝은 스승인 방장스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이 곳 해인총림에 스님의 덕화가 펼쳐져 수행가풍이 새롭게 서고, 도제양성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원융화합의 공덕을 잘 내려주시어, 제방의 스님들이 마음의 고향으로 삼는 청백가풍이 굳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앞서신 법전 대종사의 덕화를 공경으로 기리며, 앞으로도 방장스님의 지도 아래 명실상부한 종합수행도량, 법보종찰의 면모를 일신하는 우리 종단 최고의 총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5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